

문화에 대한 태도와 학습동기가 사관생도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 한 기

(육군3사관학교)

1. 서 론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30여개의 지역에서 4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국어로, 그리고 20여 개국의 3억 5천만 명 정도가 제2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 언어가 되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 학문, 정치, 외교 등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무역 등 상업적인 분야, 여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과 이들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전 세계 정보의 88% 정도는 영어이며, 고급정보의 92%는 영어라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도 영어를 범세계적인 언어로써 인정하고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여러 차례 교과과정 개편이 있어왔고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목적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

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지식과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이해 없이 외국인과 올바른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외국문화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정규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군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영어 소양능력을 필수요건으로 간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은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어 어학자원 확보 및 군 간부들의 영어능력 향상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사관학교에서 영어는 필수 과목임과 동시에 졸업인증제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관생도들도 장차 장교로 임관 후 연합작전 임무수행과 그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영어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생도들은 비록 대학생의 신분이지만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강조되고 있어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동기와 태도는 제2언어 및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사관생도들이 외국어, 특히 영어를 학습하는 데는 다양한 동기 및 태도가 있을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김민정, 2008; 박정미, 2006; 방은정, 2006; 송광희, 1998; 이담, 2008; 한은경, 2008; 현필웅, 2008). 이들 연구논문은 주로 초등학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외국어으로써 영어를 학습하는 생도들이 목표언어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학습동기 등의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사관생도들의 영어 성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도들의 TOEIC 점수를 바탕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언어와 문화

Brown(2000)에 따르면 언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언급하면, 언어는 의사소통에 사용되며, 어느 특정 언어사회 혹은 문화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더라도 인간특유의 것이고 모든 인간이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습득을 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외국어로 배우는 제2언어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언어의 특질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최근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 없던 문화항목을 추가하여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문화란 단어는 아주 간단한 단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의 양상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보통 문화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구분을 지워서 말한다. 'big C'문화(capital C culture 또는 culture with a capital C)와 'little c'문화(small c culture 또는 culture with a small c)로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Chastain, 1976; Flewelling, 1994; Hendon, 1980; Seelye, 1994; Sterns; 1993). 'big C'문화란 문학, 고전 음악, 무용, 건축, 예술 작품 등 인류의 역사와 관련 있는 공식적인 산물을 의미하며, 'little c'문화는 인간생활의 모든 양식, 곧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동과 언어적 행동, 태도, 신념,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김영숙 외 5인(1999)은 'little c'문화 습득이 문법적 능력 외에 학습자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능력 등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접근법의 등장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little c'문화 습득이 외국어학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한편 Brown(2000)은 문화란 어느 특정시기에 있어서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특징짓게 해주는 생각, 관습, 기능, 예술, 도구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그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다. 이 양자는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양자를 분리시키면 언어나 문화 중 어느 하나의 중요성이 사라진다”(Brown, 2000, p.177)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언어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교육은 곧 문화교육이고,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를 통한 문화의 이해로 종합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Dörnyei(1994)는 문화와 관련된 전략, 예를 들어 학습자의 교차문화적 인식과 목표언어 화자와의 접촉기회를 늘리는 것은 제2언어 학습에서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airns와 Cairns(1976)는 언어의 가장 흥미 있는 보편적 속성은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가 말하여지는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 그 문화 역시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언어교육분야에서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제2언어 학습자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로 사고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인간학습 경험에서와 같이 목표언어 문화학습과 제2언어 학습에 타당하고 가치 있는 사항을 기억보존함으로써 학습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Brown, 2000). 학습자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의 오해는 교차문화에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경지식이 대화자들 간에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화자끼리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언어의 표현을 목표문화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문화 간 의사소통의 성공은 대화자 간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목표문화의 이해와 지식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요인이라 하겠다(김용완, 2006).

Dörnyei(2001)는 언어란 사회적,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사회에서 사회단체의 주요한 의사전달수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2언어를 숙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여러 사안들을 숙달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제2언어 문화권의 요소들의 통합이 요구되는 사회적 성과라고 주장하였다.

2) 동기 및 태도

제2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동일한 교사, 교재, 교수방법 및 교육여건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학습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언어능력을 익히고 발전시켜나가는 반면, 어떤 학습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때, 정의적(affective)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은 동기(motivation) 및 태도(attitudes)가 언어숙달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기 및 태도 등의 정의적 요소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및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분야에 있어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Gardner and Lambert, 1972; Oller et. al., 1977).

동기 및 태도와 외국어 학습의 성취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Gardner와 Lambert(1959)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동기 및 태도는 비록 두 요인이 별개라고 간주되지만 외국어 또는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 Gardner와 Lambert는 외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의 동기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단순한 주장을 하였다. Gardner와 Lambert(1959)는 태도 및 동기가 어떻게 언어학습에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도구적(instrumental) 동기와 통합적(integrative) 동기의 차이점을 제시했다. Gardner와 Lambert(1972)는 제2언어 학습에서 동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했으며,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의 사회심리학적 구성개념을 주장했다. 그들은 캐나다에서 시행된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어학습에서의 성공은 목표언어-문화 집단을 향한 학습자의 정의적 경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습자의 제2언어 및 외국어를 배우려는 동기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동기에는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 등 2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도구적 동기란 실용적인 이유, 직장을 구하거나 학문적 요구사항의 충족 등으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숙달을 달성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반면에 통합적 동기란 목표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사회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숙달을 달성하려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기본 형태의 동기는 ESL/EFL 학습의 질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Gardner와 Lambert(1972)는 오직 통합적 동기만이 제2언어 및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통합적 동기를 갖고 있는 학습자만이 목표언어를 학습하려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목표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데 필요한 언어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Lambert(1972)와 Spolsky(1969)도 우수한 언어숙달은 통합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했다. Gardner(1979)도 통합적 지향의 학습자들은 목표언어의 원어민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더 추구하며, 그 결과 그들은 더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합적 동기가 도구적인 동기보다 성공적인 언어학습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Gardner(1988)는 더 나아가 통합적 동기가 말로 도구적 동기와 그 어떤 동기보다도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논문(Dörnyei, 1990; Gardner & MacIntyre, 1991; Kachru, 1977, 1992; Lukamani, 1972; 이영자, 1980)에서 높은 도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영어숙달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전의 Gardner 와 Spolsky 등의 연구와 상반되게 경우에 따라서 성취도가 통합적 동기보다 도구적 동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는 영어의 숙달정도가 도구적 동기 하나만으로도 성공적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환경(EFL)에서는 도구적 동기가 통합적동기보다 효율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정한기, 2005).

이 논점에 대해서 Brown(2000)은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 가

지 접근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학습자들은 통합적 동기로 목표언어를 배우는 것이 성공적일 수 있으며,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도구적 동기가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이 둘 두 가지 기본형태의 동기가 반드시 상호간에 배타적이 아니며, 제2언어 학습이 오로지 도구적 또는 통합적 동기에 의한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서의 언어학습의 성공은 이들 두 가지 동기의 혼합방식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의 또 다른 구분방법으로는 내적(*intrinsic*)동기와 외적(*extrinsic*)동기가 있다. 교육심리학에서의 이 구분법은 주로 학습자가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동기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내적 동기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적 동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Bailey (1986)는 Gardner의 통합적-도구적 동기 개념과 이 내적-외적 동기의 구성개념을 차별화하고 있다. 비록 내적 동기의 경우들이 대부분 통합적 동기로 구분되지만 일부 동기는 그렇지 않다. Deci(1975)에 따르면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행동은 그 행동 자체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보상이 없는 행동이며,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결과, 다시 말하면 언어능력과 자기결정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그 자체 이외의 외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전형적인 외적 보상은 돈, 상, 평점 및 긍정적 반환(*feedback*)을 포함하고 있으며,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도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Brown, 2000, p.164).

Brown(1991)은 내적 동기를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자신감 키우기, 자아 향상과 일부 지식 및 기술 분야에서의 능력에 대한 탐구라는 개념으로 나타냈다. Brown은 비록 언어를 교육하는 교실에서 외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언어교수는 대체로 학습자에게 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을 중시하기에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내적 동기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학습의 경우에는 내적 동기가 더욱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적 동기의 많은 경우가 통합적 동기로 구분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ESL 또는 EFL 분야에서 내적-외적 동기를 Gardner의 통합적-도구적 동기구분법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도의 개념은 다소 복잡하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태도에 대한 정의와 태도와 인간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혼동이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Brown(2000)은 태도란 인간의 인지와 정의 발달의 모든 측면과도 같이 초기 아동기에 형성이 되며, 부모나 동료가 갖는 태도,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그리고 인간의 경험 중에서 상호작용적인 정의적 요인의 결과라고 보았다. 동기와 태도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든지 태도가 동기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러한 동기와 태도간의 애매한 구분이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에서의 경험적 연구의 모순된 결과를 초래해 왔는데, 이러한 오해는 주로 초기의 Gardner와 Lambert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Gardner와 Lambert(1972)는 태도를 동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기의 주요 결정요소로 간주했던 것이며, 더 나아가 태도는 동기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행동의 주요 결정요소라고 생각했다. 비록 동기와 태도 간에 일부 유사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기와 태도는 동일한 구성개념이 아니며 태도가 반드시 동기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정한기, 2005).

Gardner와 Lambert(1972)는 태도가 언어학습에 미치는 효과와 태도와 언어학습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동기를 여러 가지의 특정 태도들로 이루어진 구성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학습자들의 목표언어의 문화에 대한 태도는 동기의 여러 양상 중의 하나로, 태도는 언어학습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의 분야에서 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또한 목표언어와 그 국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목표언어 습득에 성공적임을 확신했다.

Spolsky(1969) 역시 태도가 학습자 개인별 외국어 능숙도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목표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고 주장하였다. Oller 등(1977)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문화와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영어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통해서 목표언어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당집단의 일원이 되려는 동기가 높을 때 목표언어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Gardner(1985)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태도, 즉 성취도와 관련된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다른 언어 사회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태도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은 태도를 측정하는 수단과 제2언어 성취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태도는 3가지 방법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데, 첫째 특질/보편성의 차원, 둘째 제2언어 성취도와와의 관련성, 그리고 셋째 교육적 또는 사회적 태도이다. 이 분류법에 근거하면 제2언어나 외국어를 향한 태도는 교육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목표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Chihara & Oller, 1978; Oller, Baca, & Vigil, 1978; Oller, Hudson, & Liu, 1977)에서 태도와 언어 학습 성공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태도 변수 군이 언어성취도와 긍정적인 연관 사실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에는 자아를 향한 긍정적 태도, 원어 집단, 목표언어 집단 등이 포함된다. 이들 모든 것이 언어의 숙달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며,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 모국어 집단, 목표언어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언어 성취도를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다.

박의재, 정양수(2003)는 태도는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영어라는 언어,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국가, 문화 등에 대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정신적 자세를 뜻하며 자기 자신, 모국어 집단, 목표 언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영어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rown(2000)은 영어나 혹은 영어 원어민과의 불쾌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습자는 영어권 국가나 그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영어 그 자체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정의적 요인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제2언어 학습효과를 상승시키고 부정적인 태도는 학습동기를 감

소시켜 언어성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가설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등은 서로 다른 구인(construct)으로 존재할 것이다.

2)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는 생도들의 영어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다.

3)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중 통합적 동기가 생도들의 영어성취도를 더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학년 생도로 연구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학교의 특성상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3학년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3학년 생도들은 연구에 필요한 토익점수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모든 참가자는 생도 46기 생도로서 3사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으며 총 287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였고 TOEIC 성적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생도가 응시한 TOEIC 시험점수를 횡수와 무관하게 평균 점수를 고려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Gardner(1985)가 공식적으로 이중언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제2언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안한 태도 및 동기 테스트(The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AMTB)를 사관생도의 환경에 적합하게끔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서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AMTB는 13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인 및 예언타당도를 포함하여 아주 뛰어난 정신측정 속성을 보여주는 다중 구성요소적 동기 테스트이다. 이 테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활용하고 있으며, 제2언어 동기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Dörnyei, 2001). 본 설문은 크게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와 생도들의 영어 학습동기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서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가 생도들의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태도인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와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문항은 제외하였다. 동기부분에서도 ‘영어학습 관심도’ 문항을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한 생도들은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와 ‘영어학습 동기’ 등에 대해서 그들의 동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응답을 하였다.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TOEIC)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영어숙달도 시험으로 주로 국제적인 환경에서 상업이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현재 군에서는 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서 영어 졸업인증제의 평가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위하여 영어수업을 듣는 모든 생도들 중에서 일부 생도들을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하여 선정, 2010년 3월 초 2주간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도들은 영어학습에 관한 동기 및 미국문화에 태도에

대한 설문에 참가하였고, 설문서를 분배하면서 유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한 후 각각의 생도들은 모든 설문에 대하여 본인의 믿음에 따라 정직하게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모든 생도들의 TOEIC 성적은 학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 개인의 성적을 수집하였다. 생도는 개인별 4회에서 14회 TOEIC 시험에 응시하였고 연구자는 개인별 모든 성적을 더하여 산술평균으로 각 개인의 성적을 산출하였다.

설문서의 모든 자료는 독립변인-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와 영어 학습동기(통합적/도구적) 등-별로 분류를 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Likert의 5점 척도의 형식을 빌어서 분류하였다. 모든 설문서의 자료와 기타 자료들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10.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본 논문의 목적은 생도들의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와 학습동기가 그들의 영어 성취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만약 관계가 있다면 동기 중에서 어떠한 동기가 성취도와 더욱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크게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와 신뢰도(reliability),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상관관계 분석기법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절차의 목적은 생도들의 문화에 대한 태도, 학습동기와 TOEIC성적과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TOEIC성적의 내적 일관도(Cronbach's Alpha)에 해당되는 상관계수는 .960이며, 이는 상당히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TOEIC 성적을 영어성취도의 준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설문서의 2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42로 연구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문화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토익성적 간의 전반적인 상관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했다.

〈표 1〉 상관계수 행렬(N=287)

	문화태도평균	토익성적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문화태도평균	1	.128*	.419**	.204**
토익성적	.128*	1	.158**	-.018
통합적 동기	.419**	.158**	1	.281**
도구적 동기	.204**	-.018	.281**	1

* $p < .05$, ** $p < .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변수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018 \sim .419$ 로 높지 않았고, 도구적 동기는 토익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18, p > .05$). TOEIC 성적은 문화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문화적 태도와 통합적 동기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았다($r = .42, p < .01$).

1) 연구가설 1 검증

본 연구에서 문화적 태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등이 독립변수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구인(construct)으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연구가설 1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가 각기 다른 구인으로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여 잠재된 요인구조를 규명하는데 최적의 분석방법이다.

요인추출을 위해서는 잠재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공통요인분석 방법 중 주축방식(Principle Axis Factoring)을 사용했다. 이어 회전방식은 앞서 세 변수간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의 정도가 높지 않았고, 요인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아이겐값 1.0 이상 (Kaiser 기준)의 요인이 여섯 개가 추출되었으나 스크리도표 분석결과 세 번째 요인 다음부터는 아이겐값이 급격히 낮아 졌고, Parallel Analysis 결과 추출된 요인은 무작위로 추출한 요인들보다 아이겐값이 높아 의미가 있는 요인들이었다. 이는 이론적 근거에 일치하는 결과이므로, 요인을 세 개로

지정하고 요인을 다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인 분산의 설명비율을 <표 2>에, 회전된 요인행렬은 <표 3>에 제시했다.

〈표 2〉 분산의 설명비율

Factor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5.761	24.002	24.002	5.171	21.546	21.546
2	2.630	10.957	34.959	2.020	8.417	29.962
3	2.166	9.024	43.983	1.652	6.883	36.845
4	1.568	6.531	50.515			
5	1.156	4.815	55.330			
6	1.074	4.476	59.806			
7	.926	3.857	63.663			
8	.883	3.678	67.341			
9	.789	3.287	70.628			
10	.744	3.098	73.726			
11	.693	2.889	76.615			
12	.649	2.704	79.319			
13	.614	2.558	81.877			
14	.565	2.356	84.233			
15	.538	2.243	86.476			
16	.481	2.004	88.480			
17	.459	1.913	90.393			
18	.413	1.723	92.115			
19	.390	1.624	93.739			
20	.374	1.560	95.300			
21	.350	1.457	96.757			
22	.315	1.310	98.067			
23	.283	1.178	99.245			
24	.181	.755	100.000			

세 요인이 전체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약 37%로서 다소 낮았다. 다음으로 회전된 요인구조와 문항의 할당관계를 <표 3>에 제시했다.

<표 3> 회전된 요인패턴

	Factor		
	1	2	3
동기8	.802		
동기9	.797		
동기4	.673		
동기5	.609		
동기1	.497		
동기11	.484		
문화3			
문화2			
문화12			
문화4		.660	
문화8		.620	
문화5		.606	
문화9		.600	
문화7		.538	
문화6		.505	
문화10		.504	
문화1		.493	
문화11			
동기6			.734
동기10			.721
동기12			.639
동기3			.510
동기7			.442
동기2			.428
신뢰도 (Cronbach's α)	.820	.801	.738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관찰변수에는 3가지 공통요인이 잠재되어 있었다. 요인의 구조를 검토했을 때 요인 1에 부하된 문항은 영어학습에 있어서 문화에 동화(acculturation)하기 위한 통합적 동기를 나타내고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적 동기”로 명명했다. 통합적 동기요인은 Cronbach's α .8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 2에 부하된 문항은 모두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내용이어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문화에 대한 태도”로 명명했다. 문화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 중 4개(2, 3, 11, 12번)는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이고 문항을 포함시켰을 경우 신뢰도 계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네 개 문항을 삭제한 이후 문화에 대한 태도요인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801이었다. 요인 3은 영어를 통해 진로선택, 진급 등 생활상의 이익을 위해 학습에 임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도구적 동기”로 명명했다. 도구적 동기 요인은 Cronbach's α .74의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분석결과 문화에 대한 태도,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는 서로 다른 구인(construct)임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2) 연구가설 2 검증

두 번째 연구가설인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는 생도들의 영어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TOEIC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했다.

<표 4> 문화에 대한 태도가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B	β	t	Sig.	R ²	R ² _{adj}	F(1, 285)
(상수)	315.147		6.028	.000			
문화에 대한 태도	30.248	.128	2.179	.030	.016	.013	4.74*

* $p < .0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토익성적(영어성취도)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F_{(1, 285)}=4.74, p=.03$), 문화에 대한 태도는 영어성취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했다($\beta=.128, t=2.18, p=.03$). 회귀식은 토익성적의 분산 중 1.6%를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문화에 대한 태도가 영어성취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는 토익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임을 의미한다. 제시된 회귀분석결과는 사관생도들의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가 영어성취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이는 생도들이 영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과 미국문화 자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영어학습 과정에서 Gagné(1974)의 학습성과 영역 중 언어 정보 등 하위차원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까지도 함께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도까지도 함께 수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런 태도는 적극적인 학습 및 성취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가설 3 검증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가 영어성취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토익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했다.

<표 5>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의 영어성취 예측에 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B	β	t	Sig.	R ²	R ² _{adj}	F(2, 284)
(상수)	385.33		8.76	.000			
통합적 동기	23.40	.178	2.92	.004	.029	.023	4.30*
도구적 동기	-11.20	-.068	-1.12	.264			

* $p < .0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토익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표준 중다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F_{(2, 284)}=4.30, p=.014$). 통합적 동기 ($\beta=.178, t=2.92, p=.004$)는 영어성취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이지만, 도구적 동기($\beta =-.068, t=-1.12, p=.264$)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검토했을 때 통합적 동기는 영어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도구적 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분산팽창계수(VIF)가 1.08임을 고려할 때 이런 결과는 다중공선성(multiple collinearity)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이 토익성적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2.9%이었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통합적 동기가 도구적 동기보다 생도들의 영어 성취도와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3사 생도들은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에서 모두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통합적동기의 평균은 Likert의 5점 척도에서 3.822, 도구적 동기의 평균은 4.080이었고 내적일관도는 0.786이었으며 이는 생도들의 반응이 내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생도들은 영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토익점수)과는 무관하게 설문서 문항에서 높고 긍정적인 반응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어, 특히 토익점수는 졸업인증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시험에서의 성패가 앞으로 장교로 임관하여 진급 및 보직 등에서의 잠재역량의 판단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취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연구자의 판단은 한국에서 특수한 교육환경인 사관학교에서 통합적-도구적 동기의 양분법적인 준거의 적용은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다.

5. 결론 및 제언

사관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을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같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학습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이전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벗어나 의사소

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여건으로 문화를 교육 속에 포함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언어교육은 문화교육이고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를 통한 문화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실제적으로 사관생도들의 영어교육에도 더 많은 문화의 요소가 녹아들어가야 할 것이다.

동기와 태도는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영어가 외국어라기보다는 제2언어 또는 국제언어로서 사용되어지는 현실에서 영어학습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동기와 태도는 정말 다양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나 태도가 언어성취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통합적인 동기로 인하여 언어 학습에 성공할 수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는 도구적 동기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에서 통합적 동기나 도구적 동기가 전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동기 모두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이 두 종류의 동기가 배타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기는 태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반드시 태도가 동기의 구성요소일 필요도 없다. 태도가 동기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동기가 태도의 원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 및 태도는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호 작용한다. 태도는 학습자의 동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며, 이는 비록 동기와 태도가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별개의 요소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사관학교 생도의 경우 생도들의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와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는 영어성취도와 상관정도는 낮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통합적 동기는 토익성적의 예측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도구적 동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연구는 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결과는 3사 생도에게 국한된다는 점이다. 둘째, 생도들의 영어성취도 측정을 위하여 TOEIC점수, 영어 말하기 평가 및 영어 관련과목 학점 등을 포함하여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문화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가 각각 다른 구인임을 규명했다. 그러나 생도들의 응답을 분석했을 때 자신의 영어능력과 무관하게 통합적 동기 및 도구적 동기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분산이 크지 않아 연구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지가 생도들의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민감하게 구별해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질문지의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고 응답자에게 설문 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증제에 관한 설문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생도들의 학습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었다. 인증제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사전 설문을 통하여 보완을 한 후 추후 연구에 포함을 하는 것이 설문과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영어교육 환경은 영어를 외국어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공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는 적절한 교차문화적 수용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사회 및 문화와의 접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마지못해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영어 수업시간은 부분적으로 의사소통 향상에 목표를 두고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목표언어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Kim, 2004). 또한 Dörnyei(1990)도 목표언어의 학습이 제도적, 학문적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EFL여건과 제2언어로 목표언어를 습득하고 목표문화와 쉽게 접할 수 있는 ESL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ESL환경에서의 학습결과를 직접적으로 EFL 환경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 열풍은 적당한 관심단계를 지나 정도 이상에 이

르렀다고 할 수 있다. 영어교육은 단순히 학교차원을 넘어서 직장인들에게 까지 생존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군에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사관학교에서도 생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때 좀 더 목표언어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한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군의 각종 교육기관, 일반 직장의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학습 동기와 목표언어 문화에 대한 태도를 연구해 본다면 다른 나라에서 실시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한국의 영어교육-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어과 교육과정(Ⅰ), 교육부고시 제 1997-15[별책 14],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1997.
- 김민정, 「광고를 활용한 영미문화 지도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미 문화학습, 영어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숙, 최연희, 차경애, 김은주, 남지영, 문영인, 『영어과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9.
- 김용완, 「문화가 EFL교육에 미치는 영향」, 『STEM Journal』 7(2), 2006.
- 박정미, 「중학생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의재, 정양수(편), 『새로운 영어교수법』, 고양: 한신문화사, 2003.
- 방은정,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와 이해도가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송광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 담, 「영미문화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와 영어능력 성취도의 상관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영자, Motivational variables effecting the learning of EFL in Korea. Presentation at 1980 TESOL Convention. San Francisco, 1980.
- 정한기, 「3사 생도의 동기 및 학습태도가 영어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61, 2005.
- 한은경, 「초등영어교육의 영미문화지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현필웅, 「영어학습태도 및 미국인에 대한 태도와 미국문화지식과의 상관관계」,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Bailey, K. M, Class lectur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86, Spring.
- Brown, H. D, TESOL at twenty-five: What are the issues? *TESOL Quarterly*, 25, 245-260, 1991.
- _____,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2000.
- Cairns, H. S. & Cairns, C. E, *Psycholinguistics: A cognitive view of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6.
- Chastain, K, *Developing seco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6.
- Chihara, T. & Oller, J. W, Attitudes and proficiency in EFL: A sociolinguistic study of adult Japanese speakers, *Language Learning*, 28, 55-68, 1978.
- Deci, E,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1975.
- Dörnyei, Z, Conceptualizing motiv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40, 45-78, 1990.
- Dörnyei, Z, Motivation and motivating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Modern Language Journal*, 78, 273-284, 1994.
- _____,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Harlow,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 Flewelling, J. L, The teaching of culture: Guidelines from the national core French study of Canada, *Foreign Language Annals*, 27(2), 133-141, 1994.
- Gagné, R. M, *Essentials of learning for instruction*, Hillsdale, NJ: Dryden Press, 1974.
- Gardner, R. C,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H. Giles & R. N. St. Clair (Eds.),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pp. 193-220), Oxford, UK: Basil Blackwell, 1979.

- _____,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1985.
- _____,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language learning: Assumptions, findings and issues, *Language Learning*, 38, 101-126, 1988.
- _____, & Lambert, W. E,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3, 266-272, 1959.
- _____, & Lambert, W. E,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1972.
- _____, & MacIntyre, P. D, An instrumental motivation in language study: Who says it isn't effectiv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57-72, 1991.
- Hendon, U. S,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13(3), 191-199, 1980.
- Kachru, B. B, New Englishes and old models, *English Language Forum*, 1977.
- _____, World Englishes: Approaches, issues, and resources, *Language Teaching*, 25, 1-14, 1992.
- Kim, K. J,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English Achievement. *English Teaching*, 59(4), 2004.
- Lambert, W. E, *Language, psychology, and culture: Essay by Wallace E. Lamber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 Lukamani, Y, Motivation to learn and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Learning*, 22, 261-274, 1972.
- Oller, J. W, Baca, L. L. & Vigil, A, Attitudes and attained proficiency in ESL: A sociolinguistic study of Mexican-Americans in the Southwest, *ESOL Quarterly*, 11, 173-183, 1978.
- _____, Hudson, A. & Liu, P. F, Attitudes and attained proficiency in ESL: A sociolinguistic study of native speakers of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Language Learning*, 27, 1-27, 1977.
- Seelye, H. N,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rd ed.),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 1994.
- Spolsky, B, Attitudinal aspect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19, 271-283, 1969.
- Sterns, H,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ABSTRACT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Motivation on Military Cadets' English Achievement

Jung, Han-ki

Attitudes toward target language culture and motivation have been known as important factors in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is study, cadets' attitudes toward the target language community and culture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any relationships with English achievement. Integrative or instrumental motivation in foreign military context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which motivation was more positively related to English proficiency. Cadets' responses were shown highly positive and internally consistent in most cases. Military cadets' attitudes toward American cult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uld predict their English achievement. Even though integrative motiv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nglish achievement was low. However, instrumental motivation was not 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attitudes toward cult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integrative-instrumental motivation dichotomy might not be enough to explain specific context like cadets' English learning situation at Korea Army Academy at Youngcheon.

Key Words

문화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영어 성취도, 토익

Attitudes toward culture, Integrative motivation, Instrumental motivation, English achievement, TOEIC

논문접수일: 2010. 2. 25.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

- 11. 미국사람들은 한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SA A U D SD
- 12.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 미국 등 영어권 사용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SA A U D SD

영어학습 동기

영어공부가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 1. 원어민 강사 또는 미군들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SA A U D SD
- 2. 단지 나의 장래 경력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SA A U D SD
- 3. 내가 좀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A A U D SD
- 4. 영어권 문화집단의 활동에 좀 더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 A U D SD
- 5. 미국인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SA A U D SD
- 6. 장차 군대에서 좋은 보직이나 직책을 갖는 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SA A U D SD
- 7.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A A U D SD
- 8. 미군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SA A U D SD
- 9. 미국인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SA A U D SD
- 10. 장차 진급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SA A U D SD
- 11. 세계 각국의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SA A U D SD
- 12. 국외 군사교육 및 위탁교육 선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SA A U D SD